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26, 사무엘 하 21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26회기 기브온 사람을 위한 맹수 21장 1~14절, 다윗의 용사 21장 15절 이하, 23장 8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상하 연구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에필로그에 이르렀습니다.

이 섹션은 연대순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20장 끝에서 중단됩니다. 에필로그는 다윗의 경력의 여러 지점에서 나온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다윗이 죽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자료가 무작위로 던져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구조는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며, 이를 우리가 Chiastic 또는 동심원 구조 또는 거울 구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요를 안내해 드리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사울의 죄와 속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첫 번째 기록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고 주님께서 사울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처벌하셨던 때를 회상합니다. 이때쯤 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은 사울이 남긴 난잡함을 치워야 하므로 나는 이 부분을 사울의 죄와 속죄, 다윗을 왕의 재판관으로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왕의 재판관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 구절에 대해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요에서 해당 초기 스토리를 A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는 다윗의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는 그가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주님께서 택하신 종들에게도 항상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팀이 필요하므로 다윗의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으며 개요에서 이것을 B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왕의 재판관으로 활동할 첫 번째 이야기와 다윗의 부하들의 강력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에도 나오는 긴 시인 사무엘하 22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쓴 이 시의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길고 긴 곡이에요. C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우리는 다윗을 왕의 재판관으로 삼았습니다.

B, 다윗의 사람들의 능한 행위.

그리고 C는 다윗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23장과 24장의 에필로그에서 이 시점에서 일어날 일은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A, B, C로 갈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뒤집어서 C, B, A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의 시작 부분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마지막 말.

짧은 시라고 하는데 22장의 장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C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23장 8절부터 39절까지에서 다윗의 사람들의 능한 행위를 다루는 또 다른 부분으로 갑니다.

David에게는 실제로 30인이라고 불리는 정예 전사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거기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전에 용사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자료는 이전 자료와 같지 않습니까? 작가는 자신의 자료를 동심원 방식으로 배열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구조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사람들의 능한 행위에 관한 이 두 번째 부분을 첫 번째 부분에 상응하는 B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는 또 다른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죄와 그 속죄, 다윗이 백성을 계수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다윗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를 중재하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24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필로그의 구조를 빠르게 검토하기 위해 사울의 죄와 그 속죄, 왕의 재판관인 다윗, 그것이 A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전능한 행위, B. 다윗의 감사의 노래, C. 그리고 또 다른 시, 다윗의 마지막 에필로그의 두 번째 섹션에 C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다윗의 사람들의 위대한 행위, B. 그리고 다윗의 죄와 속죄,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A 부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를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섹션에는 명확한 배열이 있으며 보시다시피 David 경력의 축소판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남긴 엉망진창을 치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는 데 그의 용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었는데 24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그럼 에필로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죄와 그 속죄에 대해 읽을 것이며 다윗이 왕의 재판관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기브아의 피의 복수(Blood Vengeance in Gibeah)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죄, 이 경우 사울의 죄는 때때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그의 가족에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며 그의 공의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처럼 이 책도 충격적인 면이 있어서 읽기에 행복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중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후, 삼년 연속으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 기근이 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약이 맺어진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가져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그의 자비를 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근이 3년이 되기 전에 더 빨리 이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사울과 그의 피 묻은 집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집, 말하자면 자기 가족을 더럽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 이전에는 이에 대해 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은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배경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게 왜 잘못된 걸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의 일부였습니다.

사울이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9장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침략하고 있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약은 맹세를 통해 굳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에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약에서는 내가 이 조약을 어기면 신이나 신들로부터 벌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들은 조약 위반에 대한 판결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이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약이 체결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동역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울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리라 하였더니

우리는 이미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멸절시켜야 했던 대로 실패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편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조약은 맹세로 맺어진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조약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조약을 맺고 여호와께 보증인이나 보호자로 호소할 때 여호와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실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모리 족속 중에서 생존한 자였더라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배경 자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 주기로 맹세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열심으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종의 민족주의적이고 친이스라엘적이고 친유다적인 열심을 갖고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없애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 분명히 그들 중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축복하게 하리요? 우리는 사울이 행한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해요.

그러면 사울의 죄를 속죄하여 당신이 주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도록 우리가 당신을 달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면에서 당신이 이곳에서 우리의 운명을 당신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약을 어겼으며 여러분과 주님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사울과 그의 가족에게 은금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이스라엘 중 어느 사람을 죽일 권리도 없느니라

글쎄요,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나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David는 그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모반한 사람 사울은 틀림없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멸절시켰고 이스라엘 중에 머물 곳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약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강한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남자 후손 중 7명을 보자면 이제 사울이 7명보다 더 많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구약 세계와 구약에서 7은 종종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로 사용되며 충만과 완성을 나타냅니다. 완전. 그래서 그들은 이 매우 상징적인 숫자를 선택하고, 사울의 피 묻은 가문을 대표하는 그의 남자 후손 일곱을 우리에게 내어 주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여호와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 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단지 무언가로 봅니다. 주님께서서는 형벌이 치르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사울의 고향 곧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읍에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세요.

사울의 후손 중 일곱 명이 그의 죄로 인해 처형될 예정입니다. 그들이 관여했던 아니든, 그들은 대가를 치르기 위해 처형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어느 일곱 명의 후손이 죽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였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살려 두었더라.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요나단의 후손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나단의 후손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그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떨어져 절름발이였던 므비보셋은 다윗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를 돌보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또 다른 므비보셋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첩 리스바를 통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라브의 다섯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사울이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데이빗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마이클과 결혼했습니다.

실래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은 다섯 아들이더라. 따라서 메랍을 통해 나온 사울의 손자 다섯 명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부모에게 초래했을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다윗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희생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아들들과 손자들은 사울의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그들을 죽여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그 시체를 드러냈더라. 일곱 명이 모두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추수 첫날 곧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3월, 4월쯤. 이 일로 두 아들을 잃은 아야의 딸 리스바는 애도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깔았습니다.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그 시체들 위에 쏟아질 때까지 그녀는 낮에는 새들이 시체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들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리스바의 태도는 '나는 내 아들들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밤낮으로 거기에 머물면서 이 청소부들이 내 아들들의 시체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보리수확 시기인 4월, 5월, 3월, 4월, 5월쯤에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가 올 때까지 시체를 보호하여 기근과 가뭄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이 철야 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을비는 10월과 11월이 되어서야 오기 때문에 그녀는 몇 달 동안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전에 비를 내리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는 그녀가 거기에 오래 머물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오랫동안 밖에 있습니다.

다윗은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을 제대로 장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을 위한 촉매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여호와와 길르앗 주민들 중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인 후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매달아 두었던 베이트산 광장에서 시체를 훔쳤습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던 여호와와 길르앗 주민들이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성읍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곳에서 가져왔고, 죽임을 당해 드러난 자들의 뼈도 모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땅 실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장사하고 왕이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그들의 조상 묘에 장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서 그 뼈들을 가져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리스바의 행동이 이를 위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끝부분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여기서 일어난 일을 공의로 인정하시며 기브온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대신하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계절의 순환이 규칙적으로 다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들과 손자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를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이스라엘 법원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범주에 속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자녀에 대한 축복을 빼앗아 개인을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애초에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죄인의 자녀를 빼앗아가심으로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이에 대한 예를 봅니다. 오경에서 주님은 죄인, 즉 그를 미워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그들의 죄의 결과를 그들의 가족에게 삼사대까지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것이 한 사람의 생애를 넘어서는 세대를 초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자들이 아주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갖기 시작하는 이 문화에서는 15살쯤에 아버지가 될 수 있고, 30살에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서 3대와 4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 개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아람어 비문이 있습니다. 성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변에서 내 후손이 4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평생 동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명시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다단, 아비람,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벌하셨을 때 그 자녀들과 그들의 죄 많은 부모가 처형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 어린아이들, 심지어 다단과 아비람의 어린아이들까지도 삼켜 버립니다. 우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들은 그날 누군가의 집에서 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살아남았을 겁니다. 아간이여, 아간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전리품을 훔쳤을 때 그의 자녀들도 그와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그 일에 참여했음에 틀림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동물들은 왜 처형되었나요? 그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아간과 그의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다윗의 이야기에서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은 4배를 갚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는 죄인이고, 하나씩 아들들을 잃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여기서 일종의 자멸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그분에게 반역한 개인들로부터 자녀에 대한 축복을 거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을 어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배상을 요구했고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데이빗에게 화내지 마세요.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개인이 주님께 죄를 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항상 부수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여파도 있고, 이번 경우에는 그들의 조상 사울의 죄로 인해 무죄한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21장의 다음 부분인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부분인 15절부터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에필로그의 동심 구조에서 우리는 또한 23장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스스로 읽을 수 있지만 21장 15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르바임의 후손 중에 블레셋 전사 이스비베 노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무섭게 들리는데, 그는 아주 아주 큰 청동 창을 가지고 있고 다윗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청동 선창의 무게는 아마도 7.5파운드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데이비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내가 데이비드를 죽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가끔 만났던 아비새가 바로 사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데이비드는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므이를 두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David는 그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는 함께 있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숙련된 전사로서 다윗을 구출하러 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죽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그런 식으로 언급합니다. 등불은 빛을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넘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국가의 지도자, 말하자면 그들의 등불로 보고 그들을 인도하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자로 보고 그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이비드에게 당신은 더 이상 백병전 상황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의 경력이 끝날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또 다른 전투가 있는데,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인 후사 사람 십브개가 역시 라파의 후손 중 하나인 소프라는 이름의 동료로 죽입니다.

하난 이라는 이름의 용사가 있는데, 그는 아마도 골리앗의 형제일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큰 인물을 죽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실제로 에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워, 워,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에하난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하난이 단지 다윗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기까지 다윗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도 없이 왜 갑자기 그를 Ehanan 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칭호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다른

골리앗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매듭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난 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윗은 거인을 죽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골리앗이라고 불리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사무엘상 17장과 그가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붙은 다른 텍스트의 이야기에 슬며시 등장했습니다. 내 생각에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역대기의 평행 구절을 이용하는 것이다.

역대상 20장 5절에는 에 하난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라흐미가 베들레헴의 역대기 구절에서 변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두 본문 중 어느 것도 원문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손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이 당신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성경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을 확증할 때, 그것은 대개 원본 사본, 즉 원본 텍스트에 관한 일종의 진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이러한 텍스트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오성은 후기 원고 전통에는 적용되지 않고 원본 텍스트에는 적용되므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본문 비평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원본 본문이 무엇인지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결정하면 그것이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텍스트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원본 텍스트의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문에는 에하난이 죽였다고 적혀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 고유명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흐미는 아닌 것 같아요. 고유명사가 있었는데, 골리앗의 형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이라면 히브리어가 때때로 동사의 목적어를 소개하기 위해 작은 불변화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입자는 et. 형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ach입니다. 이름이 뒤에 오면 achi가 됩니다. 히브리어 문자에는 초기에는 모음 표시가 없었고 자음만 있었으며 대격 기호는 형제를 뜻하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여기서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서기관 이 그 앞에 있는 본문이 에하난이 고유 이름, et, 대격 기호, 고유 이름, 골리앗의 형제를 죽였다고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서기관이 아마도 et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의 눈이 et처럼 보이는 Brother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et를 썼다고 생각하고 이름과 Brother라는 단어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나는 그것이 사무엘하 21:19 전통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상 20장, 그들은 그것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이 다소 기술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Ehanan 이 별개의 개인이고 그는 골리앗의 형제인 개인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1~20장에 따르면 가드에서 또 다른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드 지역에 거인족이 있습니다. 골리앗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사람이고 그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각 손에 6개의 손가락이 있고 각 발에 6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대비해 히브리어 성경은 종종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모두 24개! 그리고 그도 라파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 스미야의 아들 요나단이요. 따라서 이 사람은 다윗의 조카인 개인입니다.

그는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사람은 가드에 있는 라바의 자손이었으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강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보시다시피 그의 주변에는 아주 능숙한 다른 전사들이 있었고, 그들도 다윗을 대신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거인들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동심 개요의 두 번째 부분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은 다음 부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전사였던 일부 개인에 대해 읽을 수 있으며, 여러분은 그들의 공적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은 그들이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을 위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나 저수지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쾌하지 않을까요? 글썄, 그는 누군가에게 가서 그 물을 얻으려고 노력하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용사 중 세 명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그 우물이나 저수지에서 다윗에게 물을 가져왔으며 다윗은 그들의 용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전제로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나 이거 못 마신다고 하더군요. 이 물을 보면 당신의 피가 보입니다.

너희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였으니 나는 이 물을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 앞에 전제로 붓겠다. 그래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브나야를 좋아하는 사람도 한 명 있어요. 사무엘하 23:20에서 그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용감한 전사이며,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는 모압에서 가장 강한 두 용사를 쳐죽였습니다. 그는 또 눈 오는 날 빈 웅덩이인 구덩이나 웅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럼 상상할 수 있나요? 웅덩이로 내려가면 당신과 사자가 있고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 미끄러질 수 있고 이 웅덩이는 회반죽으로 칠해져 있어서 미끄러울 수 있지만 그는 죽였으니 가능했습니다. 사자를 죽이니, 그는 거대한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그 애굽 사람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브나야가 몽둥이를 들고 그를 공격하다가 그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자기 창으로 그를

죽었으니 다윗이 이런 용사들을 두었더라 그들은 Three라고 불렸으며 특히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은 아비새를 포함하여 그들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요압의 형제를 말합니다. 그는 삼신의 우두머리였으나 삼신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우두머리였으며,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였고 삼신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새는 때때로 지나치게 열심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의 형 요압과 협력하여 아브넬을 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전사입니다. 그는 주변에 있기에 좋은 사람이고, 그것이 왜 다윗이 때때로 자신의 죄를 간과하고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거부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등을 감싸줄 수 있는 위대한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인의 정예 그룹이 있고 아비새가 그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30인이라고 불리는 긴 이름 목록을 얻습니다. 이름을 합산하면 약간 까다롭습니다. 요점은 단지 야센의 아들이 몇 명인지에 관한 것뿐이므로 이름이 3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피상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시에 30인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한때 해당 그룹의 일부였던 개인입니다. 반드시 그들이 동시에 그룹의 일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30인이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축구 팬이라면 아마도 Big Ten 컨퍼런스의 팀 중 하나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Big Ten 컨퍼런스에는 몇 팀이 있나요? 이제 다른 팀도 합류했으니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라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원래 숫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단위나 기관을 지칭하는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현대적인 유사점일 수 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모두 읽을 수 있고 총 37명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0명이라고 불리지만 모두 37명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음, 그게 목록에 관한 것인가요? 그리고 약간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Jashen의 아들을 원하는 만큼 많이 만들어서 그 금액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목록 앞의 섹션으로 돌아가면 실제로 거기에서 7개의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37명이라고 하면 30명이 넘는 삼십인과 그 세 사람과 아비새와 그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에 혼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당히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주님께서 일으킨 수많은 위대한 용사들로부터 큰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고,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나라를 수호하는 데 큰 일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긴 감사 시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23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그의 마지막 말로 불리는 짧은 시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26회기 기브온 사람을 위한 맹수 21장 1~14절, 다윗의 용사 21장 15절 이하, 23장 8절 이하입니다.